

EU지역 내 난민문제 갈등에 따른 통상과 투자의 영향: Visegrad 그룹 헝가리를 중심으로*



황기식**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이영선***

동아대학교
(yungsunshine@naver.com)



박선영****

동아대학교
(sonya2z@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 특히 EU 지역 내 난민할당제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는 EU와 비셰그라드 4개국의 난민갈등이 통상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비셰그라드 4개국은 EU회원국에 속해 있어 해외직접투자(FDI)유치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으나 현재 난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투자 이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헝가리는 비셰그라드 4개국 중에서도 난민문제로 인한 EU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국가의 외교적 문제가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국내 유입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비셰그라드 4개국 중 헝가리와 EU의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금융위기 이후 유럽 내 FDI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특히 비셰그라드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 동아대학교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 동아대학교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역에서 FDI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이를 통해, EU와의 난민문제로 갈등이 깊어질수록 비셰그라드 4개국의 투자지로서의 이점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V4국가의 FDI유입이 EU가입이라는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밝혔고, 현재의 난민갈등의 고조양상과 함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주제어 : 난민갈등, 비셰그라드 4개국, 해외직접투자(FDI), 유럽연합(EU), 정치적 갈등

I. 서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세계최초 단일시장으로 28개 회원국 가운데 19개의 나라가 단일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은 단일 시장과 단일 화폐로 28개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을 통하여 EU내에서의 노동인구이동을 장려하였다. 통합의 물결은 경제적 통합을 넘어 공동외교안보정책까지 공동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28개국의 정치적 통합까지 이루어진 현재시점에서 EU에 유입되는 난민문제는 개별국의 문제를 넘어선 EU차원의 문제이다. 1990년 더블린조약(Dublin Regulations)체결 이후 난민은 최초 유입국에서 정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안은 오히려 최근 발생한 유럽의 대량난민 사태에 특정 국가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민문제가 장기화되며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의 난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EU는 리스본조약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쿼터제를 제시하였다.¹⁾ 난민쿼터제는 EU가중투표방식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비셰그라드 4개국(Visegrad Group, 이하 V4)²⁾은 적극적으로 난민수용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할당 받게 되었다. 이에 V4는 자국에 할당된 난민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2017년 5월 해당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 1)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발한 유럽난민 문제는 2013년, 2015년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시 해당국가의 높은 복지수준과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난민의 유럽이주는 난민으로써의 이주와 경제적 이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 2)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은 1991년 출범하여,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국의 정치, 경제협력을 위하여 결성되었다. 매년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을 각 1회씩 개최하며 운영되고 있다(외교부 2009).

ECJ)에 제소했지만 역으로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³⁾ 서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는 V4가 난민수용을 거부할 경우 EU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V4의 난민수용거부로 시작된 갈등은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양상에 있다.⁴⁾

V4는 2004년 EU가입을 기점으로 해외직접투자지로 급부상하여, 현재는 서유럽기업을 비롯한 세계의 다수기업이 현지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⁵⁾를 하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이후 2010년 유로존(Euro Zone) 국가인 남부유럽 국가의 대규모 경제침체로 인해 유럽 내 FDI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난민문제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V4는 타 중·동유럽국가의 FDI감소추세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V4의 난민수용거부로 인한 서유럽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및 EU와의 정치적 갈등이 해당지역 FDI유치이점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2장에서는 정치적 요소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동유럽국가의 EU가입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얻은 FDI유입지로서의 매력을 더닝(J. H. Dunning)의 입지우위론(Locational Specific Advantage)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3장에서는 입지우위요소에 영향을 미친 EU가입국으로써의 혜택 세 가치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V4가 난민할당문제로 인해 EU와 가지는 외교적 마찰상황을 시간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헝가리와 EU의 난민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양상과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핵심내용과 의의를 제시한다.

II. 정치, 외교적 문제와 FDI의 관계연구

본 장에서는 정치 및 FDI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적 요소와 FDI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V4가 EU회원으로써 가지는 이점이 V4국가들이 가진 입지 우위론적 요소를 강화하여 해당지역 FDI유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힌다.

-
- 3) EU집행위원회는 현재 V4의 ECJ제소에 따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유럽 난민할당결정 불이행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현재까지 EU는 동유럽 난민할당 거부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문제에 대해 불복 시 제재조치가 목전에 있음을 밝혔다(연합뉴스 2017/07/27).
 - 4)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헝가리의 난민수용거부 정책으로 오스트리아에 난민이 유입되자 헝가리에 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을 라디오를 통해 밝혔다(연합뉴스 2016/09/08).
 - 5) FDI는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소유권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통제"의 요소에 의해 공공 주식 및 채권 과 같은 다른 국가의 증권에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별 된다.

1. 정치와 FDI의 상관관계

국가정치상황과 FDI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가별 FDI유인요인에 관한 연구로써, 국가 내 정치안정성이라는 요인과 FDI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내 FDI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논문은 소수이다. 아래는 2011년 이후 FDI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논문 중 자주 인용되는 논문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서 정치와 FDI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는 2011년에 와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성희(2011)는 정부의 투명성이 FDI의 유인요인으로써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후 이선헌 외(2015)에 따르면 국내의 정치적 안정성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이 FDI유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신성희 외(2015)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정치적환경보다 정치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FDI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안정성이 높고 정치청렴인식정도가 높을수록 FDI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위험지수가 높고 국가부패정도가 높을수록 FDI유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국내의 FDI와 정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정치적 요소와 FDI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대상국가	분석기간	자료	분석요소	결과
개발도상국 60개국 ,OECD14개국	1997-2012년	EIU정치적위험지수,사회적취약성지수(CenterforSystemicPeace)	인프라구축정도(인터넷,휴대폰사용자수)→정(+) 인구증가율→정(+) EIU정치적위험지수→부(-)	정치적안정성보다는사회적취약성이기업의FDI에영향을미친다.
체제전환국 28개국	초(1995-1999) 중(2000-2006) 후(2007-2010)	CSP(CenterforSystemicPeace)의국가취약성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의부패인식지수(CPI)	정치청렴인식→정(+) 정치적안정성→정(+)	실질적정치적환경보다청렴도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이FDI유입에더민감한영향
개발도상국 168개국	2000-2009년	국가부패정도(CPI)	부패지수→부(-)	정부의투명성이FDI투자에유의하게작용.

출처: 대표적으로 이선헌 외(2015), 신성희 외(2015), 전성희(2011)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저자 재정리

이제까지의 정치와 투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FDI의 유인요소로써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업의 FDI유입이 달라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외교적 갈등 및 국가 간 마찰이 국내 FDI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한·중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문제와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의 사건을 겪으며 사회권 국가의 배경에서 정치, 외교적 문제와 FDI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V4와 EU사이에 나타나는 외교적 문제가 FDI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2. V4지역 FDI입지우위요소와 EU가입의 영향

FDI에 대한 기업의 결정요인 연구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다. 현대에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기업의 FDI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하이머(S. H. Hymer)의 독점적 우위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버클리&카슨(P.J Buckley & M. Casson)의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 터닝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이 있다. 그 중 터닝의 절충이론은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이론 연구의 토대에 입지우위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절충이론은 각각의 우위요소를 기업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specific advantage), 입지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로 나누었고,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야 기업의 FDI결정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 중 장소우위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입지 선택은 노동, 원재료, 투입요소의 저렴성 및 사회간접자본의 발전 정도, 품질의 우수성, 정부지원 등 입지우위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변재웅 2010). 기업우위 및 내부화우위는 FDI결정에 있어 기업이 가지는 특징적 부분을 언급하지만 입지우위의 경우 FDI유입지 선정에 있어 입지 자체의 매력을 분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터닝의 입지우위론은 특정 지역이 FDI유입 집중지역으로 부상하였을 때 그 요인분석의 틀로 적합하다.

〈표 2〉 입지우위의 우위요소

입지우위 (Locational specific advan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물과 시장의 공간적 분산 - 투입물의 가격, 품질, 생산성 - 운송, 통신비용 - 정부간섭 - 수입규제, 세금유리, 투자유인, 투자환경, 정치적 안전성 - 경제 하부구조, 사회간접자본 발달정도 - 언어, 문화, 국민성의 이질감 -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경제성
--------------------------------------------	----------------------------------------------------------------------------------------------------------------------------------------------------------------------------------------------------------------------------------------------------------------------------

출처: 변재웅(2010) 재인용

비셰그라드 4개국의 경우 유럽 내 FDI지역선정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입지우위론적 요소를 다수 만족시키며 2004년 가입 이전부터 몇몇 서유럽 다국적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V4지역에 대한 몇몇 서유럽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이후 비셰그라드 지역의 EU가입을 전제한 움직임이었다. 1991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의 준회원국인정 이후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⁶⁾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EU가입이라는 정치·외교적 움직임이 동유럽지역의 FDI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V4가 가진 입지우위적 요소들은 EU가입을 기점으로 다방면의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었으며, V4의 EU가입을 기점으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EU 밖 다국적기업이 V4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미아(2014)는 중·동유럽국가의 EU가입전과 가입 이후 V4지역의 FDI유입변화량에 기초하여 EU가입이 중동부유럽의 FDI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동유럽의 시장규모, 경제개방, 경제개혁에 EU가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해당지역의 FDI유입도 증가함을 증명했다. 신성희 외(2015)의 연구는 정치적 요인이 중·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의 FDI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체제전환국의 정치청렴도에 대한 인식 및 정치안정성이 FDI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중·동유럽 국가의 정치청렴도에 대한 인식과 정치안정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윤덕희(2008)는 체제이행 이후 서구로의 회귀와 EU가입이 중·동유럽의 전망과 목표가 되었으며, EU가 중·동유럽이 정치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발견했다.⁷⁾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EU의 가입은 실제로 V4국가의 FDI유치에 있어 입지우위론적 요소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원호(1999)는 1990년대 체제전환이후 V4와 EU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동유럽 국가가 EU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역수지적자가 나타난 것을 지적했으며, 그 원인을 EU의 무역장벽으로 분석한다.⁸⁾ V4는 EU가입이후 각종 관세와 무역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FDI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6)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기업 중 아우디(Audi)는 1993년 해당지역으로의 투자결정 및 공장설립이 이루어졌다.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와 같은 1991년 설립이 추진된 기업에 한해서는 체제변경 이후 V4국가의 토지의 사유화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집중적 투자는 모두 V4국가들의 EU가입이 승인된 이후 결정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 투자에 EU가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2/09/15).

7) EU는 가입 희망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수준에 따라 가입 후보국을 차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윤덕희 2008). 이는 EU가입 목표하에 중·동유럽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체계적, 단계적 서구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V4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였다.

8) 1990년대 EU는 동유럽이 판매우위에 있는 물품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V4로부터 EU로의 수출을 제한하였다(조원호 1999).

김신규(2016)에 따르면 V4지역의 FDI 입지우위요인은 지리적 요인, 노동비용 생산성, 유리한 세제와 세율, 투자인센티브, 신용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V4의 입지우위를 설명하는 요소 중 지리적요인과 노동비용 생산성을 제외하고는 EU회원국으로써의 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3장에서는 V4가 EU의 회원국으로서 가지는 혜택이 FDI의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Ⅲ. EU 회원국으로써 FDI 유치 환경과 이점

동유럽은 EU의 회원국이 되면서 FDI집중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투자환경은 FDI유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황기식 외 2009). 과거 동유럽의 EU가입이라는 정치·외교적 요소는 V4지역의 입지우위요소를 강화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 국가 간 난민갈등상황은 FDI유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장은 동유럽이 EU에 가입함으로써 가진 FDI투자 이점을 EU지원금, EU회원국 간 무관세혜택, 신뢰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후 EU와 V4사이의 난민문제로 인한 갈등심화가 V4지역 FDI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하겠다.

1. EU의 지원- EU예산

V4는 1989년 체제전환이후 중동부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단일 시장 내 경제 발전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체제전환 이후 발전과정에서 EU내 제조업의 기지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서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 기업의 공장이 다수 진출해 있다. 이러한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EU예산을 통한 지원금이 V4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망 발달에 큰 기여를 했다.

EU지원금은 EU 회원 간의 고용창출 및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예산으로 EU에서는 인프라 관련 예산을 총 450조원 규모의 크기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중동부유럽국가에 거의 절반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KOTRA 2016). 또한 EU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분담금이 예산의 비중에서 점차 증가하고 하고 있다(안병익 2010). EU는 7년 단위로 EU의 기금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EU 내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장려를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EU 지역개발예산 중 V4에 할당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EU의 예산은 EU 내 지역 간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다. <표 3>은

각각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2014-2020년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책정금액을 지역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3〉 V4유럽지역개발기금 분배현황

구 분	기준(EU 평균대비 1인당 GDP)	인구 비중	금액 (Euro)	동유럽국가 기금*배정액(Euro)/유럽지역개발기금에 한함
저개발지역 (Less developed Regions)	75%이하	27%	1820억	폴란드(510억), 체코(153억), 헝가리(150억), 슬로바키아(95억)
전환지역 (Transition Regions)	75~90%이하	12%	354억	-
선진지역 (Developed Regions)	90%이상	61%	543억	폴란드(22억), 슬로베니아(8억), 헝가리(5억), 루마니아(4억)

출처: 코트라(2016b)

EU예산은 현재 2014-2020년 7년간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때 지원되는 3518억 유로 중 V4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중은 26.5%에 달한다. 그 중 헝가리는 이렇게 지원되는 지역개발기금의 30%를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헝가리 내에서 FDI기업에 대한 특혜 및 낮은 세율은 이러한 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다.

V4지역에서 EU예산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국가별 총 지출대비 EU예산지원의 비중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2012년 국가전체지출 대비 EU예산지원금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EU예산이 정부지출의 10%정도의 금액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위 〈표 3〉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재 V4국가의 EU예산 지원금이 과거 2007-2014년 보다 4배 정도 높게 책정된 것을 반영하면 정부지출의 20%정도를 EU예산지원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V4 EU예산 운용(2012년)

	정부지출	EU예산지원	정부지출 대비 EU예산 비중
폴란드	1,610억 유로	157억 유로	9.6%
체코	680억 유로	45억 유로	6.6%
슬로바키아	270억 유로	23억 유로	8.5%
헝가리	470억 유로	42억 유로	8.9%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헝가리의 경우 EU의 예산확보를 위해 ‘세체니(Szechenyi)2020’이라는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발제하였으며, 이는 경제개발 및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다(코트라 2016a).⁹⁾

2. 단일시장-무관세 혜택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CC)의 창설 이후 유럽통합은 정치영역까지 이루어졌으며, EU 회원국들은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었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회원국에 대한 모든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⁰⁾ 2004년 비세그라드 4개국의 EU가입 이후 해당 지역에도 이러한 공동관세가 적용되었다.

초기 비세그라드 지역의 투자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낮은 임금수준에 비해 서유럽 소비시장과 가까운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이러한 입지우위적 요소는 점차 감소하고 EU의 관세혜택 및 EU예산의 지원이 FDI유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국가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EU가입 이후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EU역내국가의 FDI투자가 256% 증가했다(김미아 2014).

V4는 EU회원국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시에 노동자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래 〈표 5〉는 국가별로 V4가 EU에 가입할 당시인 2004년과 현재 2016년의 최저임금을

9) 코트라(2016a)에 따르면, 2014-2020년 헝가리 개발계획 중 상위 4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각각 ①경제개발 및 혁신, ②지역 및 도시개발, ③통합 교통 개발, ④환경 및 에너지효율로 경제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이상의 기금이 사용된다.

10) EU조약 및 EU 기능조약 110조(TAX PROVISIONS)에 명시 되어있다.

비교한 표이다. 각각 나타내는 금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주요 서유럽 4개국과 동유럽 4개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V4의 경우 2004년 EU가입 이후 임금의 2/3가 상승하는 노동임금에 큰 폭의 성장이 있었다. 이는 노동비용, 생산성 측면에서 FDI유치에 대한 입지우위적요소의 약화를 의미한다.

〈표 5〉 V4와 서유럽 국가 간 최저임금 비교(연봉기준)

국가/년도	최저임금(US Dollar)		국가/년도	최저임금(US Dollar)	
	2004	2016		2004	2016
독일	.	20,847	헝가리	6,582	9,155
프랑스	18,125	20,414	체코	7,204	8,399
네덜란드	22,051	22,210	슬로바키아	5,827	8,980
오스트리아	20,561	21,967	폴란드	6,739	11,977

출처: OECD Statistics. 저자 재구성

V4는 EU회원국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시에 FDI유치에 대한 입지우위요소에서의 약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상대적 약화요인은 EU 내 무관세혜택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철폐로 상쇄될 수 있다.

3. 시장의 신뢰성 증대

EU는 확장된 통합의 기로에 봉착되어 있다.¹¹⁾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EU공동통상 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에 FDI가 포함됨으로 EU가 포괄적 투자협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¹²⁾

리스본 조약 발효 전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체결은 개별국가의 권한으로 귀속되어있었으나, EU가 포괄적 투자협정체결 권한을 위임 받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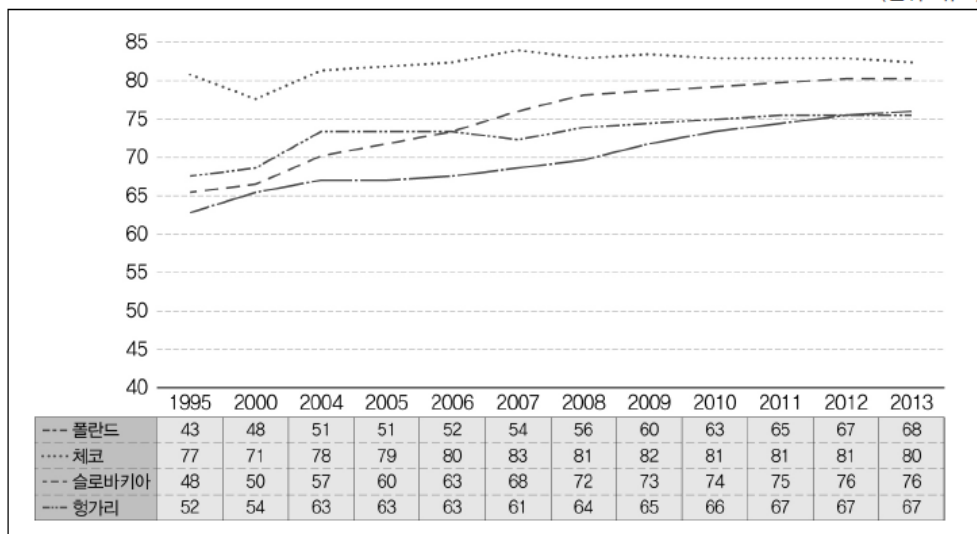
-
- 11)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된 ‘미니 조약’이다. 유럽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하기로 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 12)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투자협정에 관한 권한은 각국의 권리로 인정 되었다. BIT에 관해서도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는 협정권한이 각국의 권리였으나, 조약 발효 후 BIT 협정권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의 협의사항이 되었다.

이후 EU역내 BIT는 CCP로 대체 될 전망이다(유준구 2013). FDI가 CCP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FDI와 관련한 규제 및 제반사항이 EU의 책임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EU 역내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EU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개별 국에 대한 신뢰도는 EU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로 대체 될 수 있다.

비세그라드 4개국으로 유입된 FDI분야별 투자는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입된 FDI중 독일의 투자 비중이 가장 크며, 폴란드 21.1% 체코,16.1%, 헝가리 30%, 슬로바키아 16%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로 유입된 FDI의 전체 투자중 제조업 분야의 투자 경우 폴란드는 32%, 체코는 24.5%,헝가리는 30%를 차지하고 있다(김신규 2016).

EU 가입 이후 비세그라드 4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성장률은 2003년 3.75에서 2013 5.4%증가 했으며,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8%에서 9.1%로 증가하였다. 가입 전 GDP 성장률이 2.5%로 머물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가입 후 GDP 성장률이 3.5%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그림 1〉 EU28=100일 때, 중부 유럽 4개국의 1인당 GDP 수준 변화(1995~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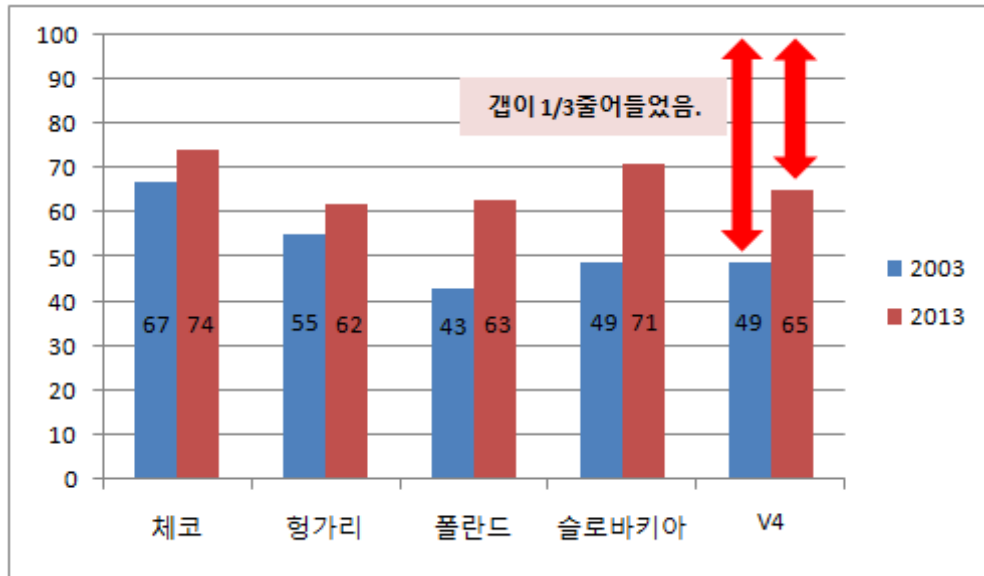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세그라드 4개국은 유럽전체를 100으로 했을 경우 2003년 1인당 GDP 수준은 2013년에 폴란드가 68, 체코가 80, 슬로바키아가 68, 그리고

헝가리가 67로 EU가입으로 인해 상승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신뢰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그림 2〉 구매력기준 비세그라드 지역 1인당 GDP(EU15개국 대비 %)



출처: erstebank

〈그림 2〉은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비세그라드 4개국의 GDP가 EU-15개 국가의 1인당 GDP의 49%에서 10년 후 65%로 증가하였고 체코는 67%에서 74%로 헝가리는 55%에서 62%, 폴란드는 43%에서 63%나 증가 했으며,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는 49%에서 71%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EU라는 시장성의 이점과 신뢰성의 증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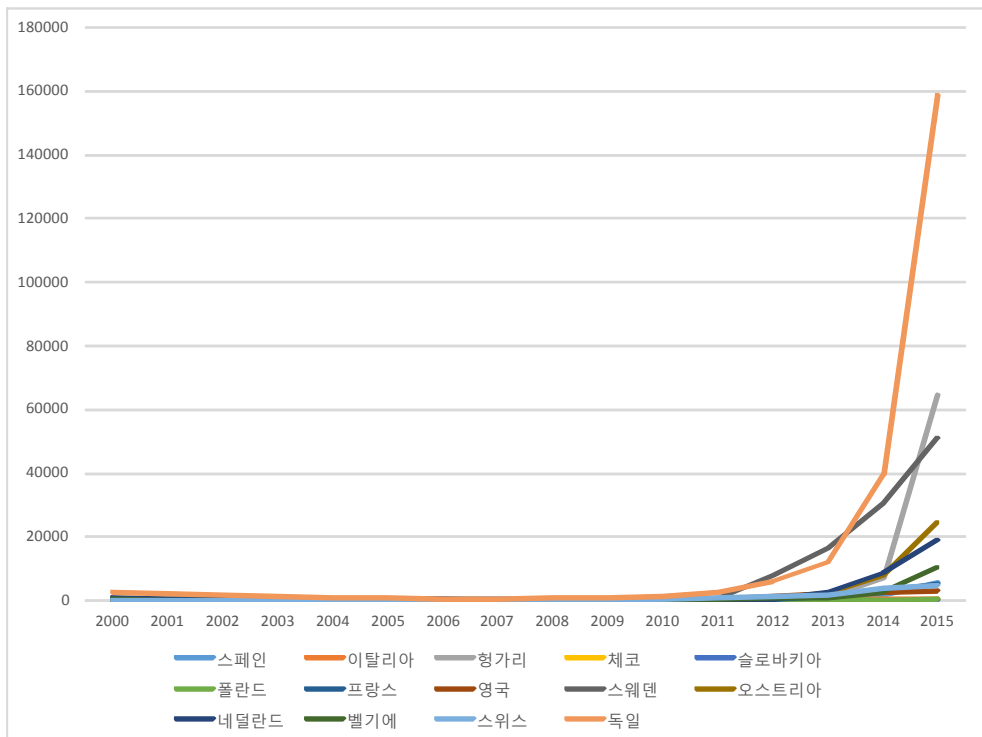
IV. 난민문제와 대 헝가리 투자 영향

본 장에서는 난민문제 발생이후 V4에 발생한 투자 감소현상과 EU와의 난민갈등 심화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헝가리의 FDI유입감소에 대해 헝가리와 EU의 갈등심화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1. 비셰그라드 4개국과 EU의 난민갈등

EU내 난민갈등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의 발발로 발생한 대량난민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유럽으로 유입되며 시작되었다. <그림 3>은 유럽 내 시리아 난민유입량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웨덴은 이미 시리아에 내전이 발발한 2011년부터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2013년, 2014년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추이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럽의 주요 난민유입국 외에서도 난민유입에 있어서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2015년에 들어서는 난민유입에 있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림 3> 유럽 내 시리아 난민증가현황



출처: UNHCR Statistics, 저자 재구성

이러한 유럽 내 난민 유입급증에 따라 2015년 9월에 EU는 난민 쿼터제를 시행하여 유럽에 유입된 난민을 국가의 수준별로 나누어 숫자에 차등을 두어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중유럽 4개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U가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상대로 난민 수용정책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EU의 입장에 수용 할 수 없다고 하였고, EU기금의 경제적 불이익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헝가리와 체코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¹³⁾ 특히 이러한 중유럽 4개국 중에서도 헝가리는 난민반대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가 이러한 난민 할당결정에 불복할 경우 EU집행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가해지고 있다(안병익 2016). 이와 관련된 문제를 국회 안으로 상정하며 국가전체가 난민에 반대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는 난민할당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 더 명확한 의사전달을 시도하였으나, 투표인원 미달로 국민투표 결과는 무효가 되었다. 현재 2017년에 이르러는 난민할당문제에 대해, 슬로바키아와 ECJ에 제소한 상태이다. <표 6>는 유럽 내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EU 난민문제 연도별 정리

연 월	사 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2013년	유럽 내 난민이 증가하기 시작
2015년 초	지중해, 남동유럽을 통해 EU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 급증
2015년 9월	EU난민 쿼터제 합의.
2015년 11월	헝가리 국회 'EU집행위가 난민쿼터를 회원국에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결의안 통과.
2016년 6월	비세그라드 4개국 난민반대 공동성명 발표.
2016년 10월	헝가리 난민할당 반대 국민투표실시.
2017년 5월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난민할당문제로 ECJ에 소송제기.

출처: 연합뉴스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저자 재구성

현재 유럽에서 난민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비세그라드 4개국에 속하는 국가인 헝가리가 있다. V4의 난민거부는 EU내에서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타 회원국들에게도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ECJ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EU집행위는

13) EU는 난민분산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절차를 준비 중이다(연합뉴스 2017/06/14).

V4국가에 대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7/27).

2. EU내 난민 문제와 투자관계

유럽 내의 난민 갈등은 시리아 난민 발발이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EU의 난민할당에 비세그라드 4개국은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난민수용에 대한 반대는 서유럽에서 난민급증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V4의 난민거부에 대한 EU 내 난민수용을 받아들인 주변국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케른 총리는 헝가리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4개국을 겨냥하여, 난민수용거부 시 EU예산편성도 줄어들 것을 경고했다.¹⁴⁾ 이에 현재 유럽은 난민을 수용한 서유럽 국가와 난민유입에 반대하는 동유럽국가간의 갈등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갈등과 반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서유럽 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나타난다. V4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독일, 네덜란드가 FDI 투자 상위를 차지한다. 각국에서 독일, 네덜란드 국적의 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FDI비중을 보면, 헝가리 19%, 체코 39%, 슬로바키아 29%, 폴란드33%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관련 내용은 <표 7>을 통하여 제시했다. 다음은 국가별 총 FDI유입규모 중 각각 EU회원국의 FDI유입규모와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EU역내 총 FDI의 V4국가별 FDI유치금액 순위

투자규모 순위	국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1위	아일랜드	14%	네덜란드	26%	네덜란드	22%	네덜란드	17%
2위	룩셈부르크	12%	오스트리아	14%	오스트리아	15%	독일	16%
3위	독일	11%	독일	13%	체코	12%	룩셈부르크	12%
4위	네덜란드	8%	룩셈부르크	12%	이탈리아	12%	프랑스	12%
5위	스페인	7%	프랑스	6%	독일	7%	스페인	6%

출처: export.gov.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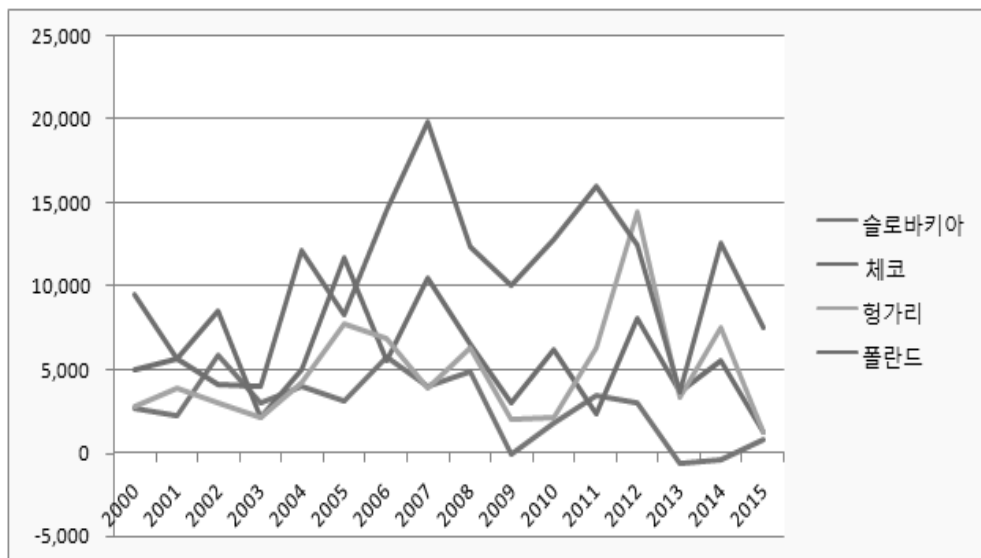
* 각각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2014년, 슬로바키아는 2016년 자료

14) 헝가리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4개국이 난민할당을 외면 한다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스트리아 케른 총리가 언급하였으며, 이는 헝가리 오르 총리의 ‘난민은 테러의 트로이 목마’라는 언급과 관계있는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세계일보 2017/03/09).

아래 그림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비셰그라드지역 내 FDI 유입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2004년 비셰그라드 4개국의 EU가입을 전후로 FDI 유입량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4개국 공통적인 FDI감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침체이다. 하지만 2013년, 2015년의 FDI 유입흐름을 보면, 2013년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FDI유입이 저조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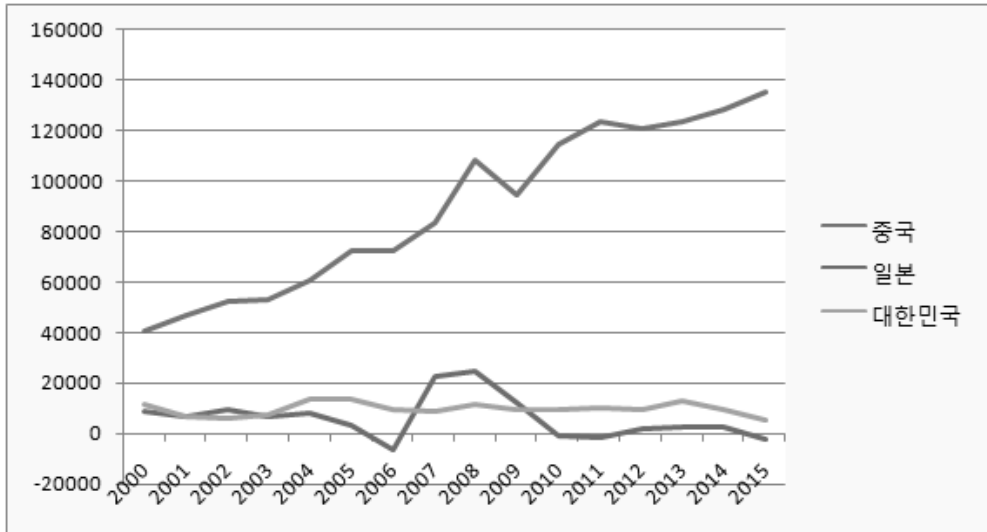
비교를 위하여 한중일 3개국의 FDI유입흐름 변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하여 보면,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 발 금융위기 사건의 영향이 2008, 2009년의 FDI유입감소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2015년의 FDI유입감소현상은 유럽에서만 전체적으로 나타날 뿐 아시아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2013, 2015년의 FDI 침체현상은 유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나 아래에는 V4의 현황만 <그림 4>로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때 보다 2013, 2015년에 더 큰 폭의 FDI유입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2013년 남유럽의 경기침체와도 관련이 있으나, 여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V4는 더욱 큰 폭의 FDI감소가 있었다.

〈그림 4〉 연도별 V4국가내의 유입 FDI 흐름변화(단위: US달러 백만)



출처: UNCTAD Statistics.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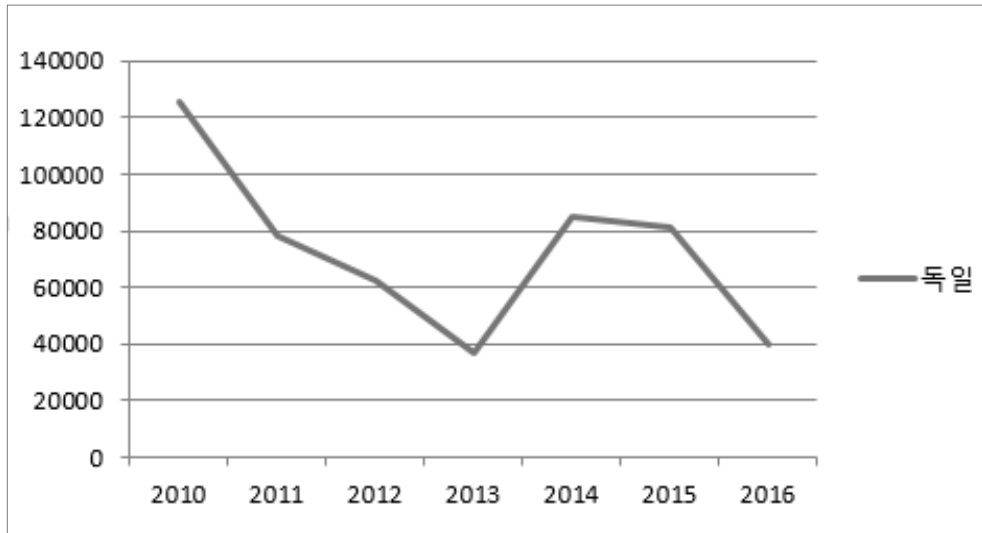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한중일 3개국내의 유입 FDI 흐름변화(단위: US달러 백만)



출처: UNCTAD Statistics, 저자 재구성

아래 〈그림 6〉는 독일에서부터 투자된 전체 FDI량을 연도별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독일에서부터의 FDI 유출량 변화가 동유럽국의 FDI유입량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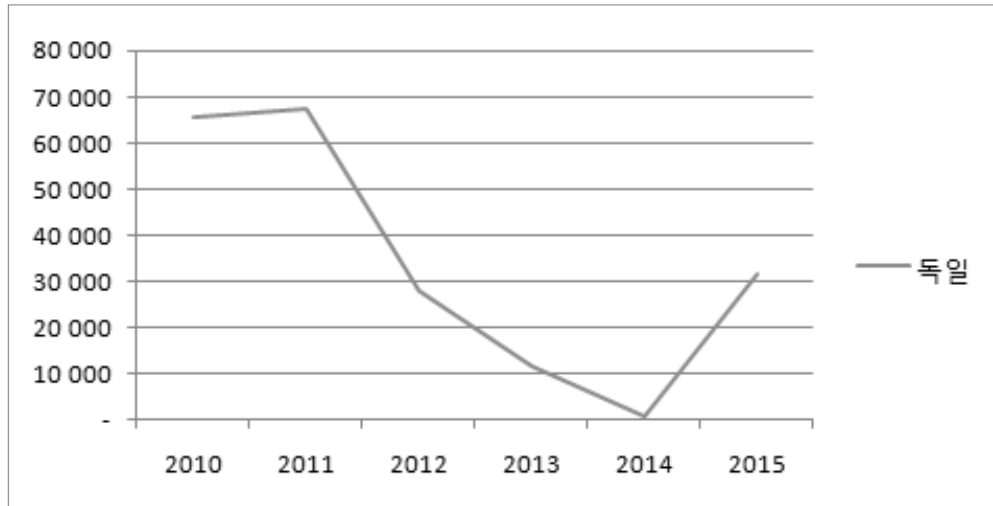
〈그림 6〉 독일 연도별 FDI투자 현황



출처: OECD Statistics, 저자 재구성

난민 쿼터제 거부로 인한 정치적 문제와 FDI유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헝가리로의 FDI 유입량 감소와 관련한 독일로 부터의 대 헝가리 FDI투자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림 7〉 헝가리로 유입된 독일 FDI유입량 연도별 변화



출처: 헝가리 통계청. 저자 재구성 (단위:US달러 백만)

〈그림 5〉, 〈그림 6〉, 〈그림 7〉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기간 독일 FDI유출 흐름과 헝가리로 유입된 독일 FDI 유입흐름의 변화모형이 일치한다. 헝가리 FDI유입흐름에 있어 독일 FDI유입이 헝가리의 FDI에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3. EU내 난민 문제와 헝가리

헝가리 투자청(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HIPA)에 따르면, 2015년 Site지에서 선정한 동유럽에서 가장 투자가 유망한 국가로 헝가리가 뽑혔으며, 체코와 폴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헝가리로 투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헝가리 시장을 통해 유럽의 전반적인 판매시장의 입지적 이점을 보고, 입지적 이점을 고려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¹⁵⁾ 하지만 동유럽국은 정치적 불안이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영국의 EU 탈퇴와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유입 등이다. 현재 EU는 동방확대전략

15)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검색일: 2017/08/09).

의 일환으로 예산 중 4분의1 이상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신흥회원국에 지출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70억유로 이상의 영국 EU 분담금이 중단될 경우 동유럽 국가에 대한 EU 예산 지원의 조정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등에서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동유럽 경제 및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가하는 난민의 정착과 회원국 간의 비용 분담을 위해 유럽연합은 난민 쿼터를 정했지만 헝가리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연합 중심 국가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동유럽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건설경제 2016/09/01).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다수 유럽기업은 투자 및 생산 거점지로 활용하기 위해 헝가리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의 투자는 EU와 연계된 생산구조로 EU내에서의 갈등 상황에 따라 FDI유입량이 변화할 수 있다. EU가 난민 할당 정책에 반대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상대로 ECJ 제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더구나 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이들 국가가 EU 회원국의 난민 의무할당을 취소해달라고 ECJ에 제소한 데 대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¹⁶⁾ 난민위기는 EU 회원국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나 태도 결여로 인하여 EU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¹⁷⁾

실제로 이러한 헝가리의 난민반대로 인한 EU내 갈등과 관련한 갈등양상의 증가와 EU 기금의 축소라는 두 움직임은 난민 갈등으로 인한 헝가리의 EU 이탈현상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일시적인 이슈로 지나갈 것만 같았던 유럽 내 난민문제가 테러의 발생과 함께 안보적 이슈로 부상하며 국가 간 갈등 양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증대로 인해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유럽 국가가 EU에서 나갈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 EU국가로써 자국 내 투자유치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4개국이 EU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지로서 매력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16) EU ‘난민거부’ 헝가리·폴란드·체코에 법적조치준비 (연합뉴스 2017/07/27).

17) 출처: 주헝가리 대사관 “2015-2016경제전망(1)” (검색일 : 2017/08/09).

헝가리의 경우 비셰그라드 4개국 중에서도 난민문제로 EU와 빚어지는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2016년 난민수용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2017년 5월에 들어서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EU의 난민할당 수용 요구에 대해 ECJ에 제소 하였다. 하지만 갈등의 양상이 심해지고 EU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비셰그라드 4개국의 투자지로서의 이점은 감소한다. 이러한 양상은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의 투자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본논문의 IV장에서 확인 했다.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에는 현재 삼성, LG, 현대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기업이 유럽시장진출의 용이함을 이유로 진출해 있다. 이러한 난민갈등으로 인해 국가 간 다수의 국내기업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국가무역수지에서 수출비중이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국가의 외교적 갈등이 FDI유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난민할당을 둘러싼 비셰그라드 4개국과 EU의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투자 감소 현황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의 난민갈등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서도 분석하였다. 동유럽과 EU와의 갈등양상이 두드러질 경우 비셰그라드 4개국에 대한 투자 감소는 서유럽 국가에서의 투자 뿐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 증감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유럽 내에서의 난민문제로 인한 갈등과 투자증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한 국가 간 외교 관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김미아. 2014. 중·동유럽제국의 EU가입과 경제개혁이 FDI에 미친 효과. 유럽연구, 32(3), 63-84.
- 김신규. 2016. 비셰그라드 4개국(V4)의 새로운 교역, 투자유치 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EU연구 42, 132-133.
- 2014. 중부유럽4개국의 경제산업구조변화와 입지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변재웅. 2010. 해외직접투자론1:이론 및 전략. 비즈프레스.
- 신성희·권일숙·설원식. 2015. 체제전환국 FDI유입 결정요인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5(2), 125-135.
- 유준구. 2013. EU 통합 투자협정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EU의 국제투자 환경과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11(2), 115-137.
- 안병억. 2016.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8, 4-24.
- 안병억. 2010. 유럽연합(EU)예산의 발전과정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13(4), 301-326.
- 외교부. 2009. 폴란드 개황. 외교통상부.
- 윤덕희. 2008. 동유럽의 체제전환-유럽통합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14(1), 185-212.
- 이선혜·박세운. 2015.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6(1), 87-115.
- 이은구. 1996. 중부유럽 경제권의 형성과 회원국간 협력정책: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57-182.
- 전성희. 2011. 개발도상국의 FDI유입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FDI to Developing Countries: A Panel Data Analysis, 2000-2009). 국제통상 연구 16(4), 63.
- 조원호. 1999. 동유럽국가들의 세계경제 편입: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영산논총 3, 41-54.
- 채형복. 2012. 리스본조약 이후의 EU 공동통상정책결정제도. 통상법률 107, 44-72.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2008. 동유럽 7개국의 2009년 경제성장 전망 및 정책 진단.
- 황기식·박선화. 2009. 전환경제국(Transition Economics)의 제도발전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중·동북 유럽과 중국의 사례 비교. 유럽연구 27(2).

- Cooper, A. Davis, G. 2016. 'Trumpian' Attitudes in Central Europe: Causes for Hungary's, Germany's and Poland's Attitudes towards transatlantic trade. Claremont-UC Undergraduate Research Conference on the European Union Vol 9 Article 2.
- Chung, K. Chung, J. 2014, Political Risk Management impacting FDI strategy.
- Patel, Shekhar Kumar. 2013. FDI and Political Stability in India.
- Jin, Siwon. 2004.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wards Contending Theor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코트라. 2016a. 2017헝가리 진출전략.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 코트라. 2016b. EU시장특성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전략. 코트라.
- 코트라. 2016c. EU 기금을 활용한 유럽시장 진출 확대전략. 코트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8/0200000000AKR20160908159400088.HTML?input=1195m> (검색일 : 2017. 08. 08).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16473> (검색일 : 2017. 08. 10.).
- http://businessnews.chosun.com/nmb_data/files/economic/kiem_25.pdf (검색일 : 2017. 08. 03.).
- http://www.erstebank.hr/content/dam/hr/ebc/www_erstebank_hr/misc/press/2014/2014_4_23_EN_Report_Visegrad.pdf (검색일 : 2017. 08. 04.).
- https://www.erstebank.hr/content/dam/hr/ebc/www_erstebank_hr/misc/press/2014/2014_04_23_EN_Report_Visegrad.pdf (검색일 : 2017. 08. 0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4/0200000000AKR2017061406900009.HTML> (검색일 : 2017. 08. 06).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09/20170309003303.html?OutUrl=naver> (검색일 : 2017. 03. 09.).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34&cdKey=101015&itemIdx=37743&categoryIdx=76&categoryType=004> (검색일 : 2017. 08. 0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7/0200000000AKR20170727090400009.HTML> (검색일 : 2017. 08. 09.).
- <http://hu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ordid=3683&seqno=1186176&c=&t=&pa> (검색일 : 2017. 08. 09.).
- <http://www.ois.go.kr>
- <https://slovak.statistics.sk>
- <http://www.ksh.hu/Search>
- <http://hun.mofat.go.kr>
- <http://www.oecd.org>
- <https://stats.oecd.org>
- <http://www.europarl.europa.eu>
- <http://epp.eurostat.ec.europa.eu>
- <https://www.export.gov>
- <http://www.segye.com>
- <http://www.kita.net>
- <http://unctad.org>
- <http://www.newsis.com>
- <http://news.kotra.or.kr>
- <http://www.yonhapnews.co.kr>
- <https://www.erstebank.hr>

● 투고일: 2017. 07. 14. ● 심사일: 2017. 07. 20. ● 게재확정일: 2017. 08. 16.

Impact of the Refugee Problems o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U

: Focusing on Visegrad 4 Countries Including Hungar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Lee Youngseon (Dong-A University)

Park Seonyoung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onflicts between the 4 Visegrad nations and the EU affect on the trade and investment. The conflict is mainly due to the refugee problems including the EU refugee quota policy. It has examined how the conflicts affect the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Hungary which is one of the four countries of the Visegrad. Hungary is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against the EU among the four countries over the refugee problem. In fact,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Hungary have enjoyed lots of locational advantages by joining the EU. On the other hand, if they do not belong to the EU, they will not be in advantageous stands anymore. Also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a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 Visegrad 4 and the EU deepens, the amount of inward FDI into 4 countries will decrease.

The results also show that as the conflicts with the EU over the refugee problem deepens, the advantages that the Visegrad had as a source of investment diminish. This also impacts on the investment of the four countries, including Hungary. If the conflicts among the countries continue and develop, it is expected that many domestic companies will suffer a great damage as well.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will greatly affect the domestic economy, which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exports in the national trade balance.

〈Key words〉 Refugee conflict, Visegrad group, FDI, EU, Diplomatic conflict